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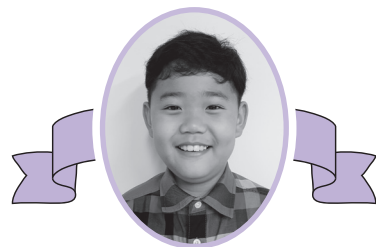
은상





국토연구원장상

2040으로 고고!



장재원 | 대전 성룡초등학교 2학년

“친, 거실 청소를 부탁해.”

나는 로봇공학자다. 친과 환경은 내가 만든 로봇인데 친은 집안 살림을 도와주고, 환경이는 정원을 관리한다. 로봇들은 태양열 에너지로 충전하며 적은 양의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2021년 내가 열 살 때 인류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발표가 있었다.

“여러분, 빙하가 녹고 지구의 동식물이 죽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5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50%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마스크를 벗을 수 없었고, 쓰레기 더미로 사람들이 살 곳을 잃었다. 미세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먹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먼저 죽었고, 온실가스로 지구가 뜨거워지며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났다. 갑작스런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자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이 일어났다. 당장 일회용컵,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법이 생겼고, 심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은 벌금을 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었고 자동차와 비행기 이동을 줄였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힘을 합쳐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2040년 현재 나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무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에 타지 않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집이다.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은 모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귀여운 야생동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건물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동물과 식물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 법 때문이다.

로봇은 자연친화적인 동시에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내가 사는 대전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시골 곳곳에도 그 지역에 맞는 로봇이 일을 하고 있다. 거리에는 교통로봇이 도로가 막히지 않게 교통신호를 조절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준다. 드론로봇은 하늘에서 도둑, 유괴범 등을 잡아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환경로봇은 쓰레기를 버릴 때 얼굴인식을 해서 바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양이 많거나 일회용품을 많이 버린 사람에겐 벌금을 물린다. 나는 지난주에 생일파티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렸더니,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오늘의 쓰레기는 11명이 일주일 동안 버리는 쓰레기양입니다. 쓰레기양을 초과했으므로 환경비용이 청구됩니다.” 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로봇은 집안에도 있다. 집집마다 필요한 로봇은 집안일을 해주는 로봇이다. 할머니한테는 안마로봇이나 반려동물봇이 인기 있다. 우리 집엔 최근에 내가 만든 로봇이 들어왔는데 바로 베이비시터봇이다. 백일 된 우리 아기에게 분유를 타주고, 졸리면 엄마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준다. 나는 아기가 울 때 왜 우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베이비시터봇은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한다. 덕분에 아내와 나는 휴식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었다.

로봇공학자로 우리나라를 빛낸 나는 어제 뉴스에 초대되었는데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했다.

“박사님, 지금 개발 중인 로봇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로봇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만드는 로봇이 새와 고양이와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고 사람과 동물, 나무를 살린다면 기꺼이 연구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돕기 위한 로봇을 계속 연구할 것이다. 자연과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을 만들어가겠다.